



파래 채취하는 女 9일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바닷가에서 어민들이 파래를 채취하고 있다. 파래는 칼슘과 식이섬유, 무기질이 풍부해 조혈작용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작은 학교의 '성대한 졸업식'

### 1명 졸업 영광 백수서초 주민 축하...광주 지산초 '축제의 장'

### 보성 웅치초 통합전 마지막...50~70대 만학도 '감동의 졸업'

'졸업 시즌'이다. 금요일인 10일 하룻동안 광주에서만 153개 초·중·고교의 졸업식이 열리고 전남지역도 절반이 넘는 219개 초등학교가 이날 졸업식을 갖는다.

특히 졸업생이 10명도 못되는 소규모 학교들은 몇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성대하고 정겨운' 졸업식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구례 용방초교는 10일 구례 자연드림파크 내 영화관을 빌려 9명의 졸업식을 연다. 졸업생들과 1~5학년 학생 31명이 만든 영화 3편을 교직원,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즐기는 축제로 꾸며진다. 아이들이 주·조연으로 출연해 찍은 '보건실로 가는 완벽

한 방법', '의문의 선물', '사랑해 친구야' 등 짧은 3편의 영화를 감상한 뒤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학교생활 동영상과 공연 등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해남 송호초는 이날 10명인 졸업생들을 위해 가족석을 따로 마련했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세족식'을 연다. 장래희망과 다짐을 담은 글을 '꿈상자'에 담아 10년 뒤 다시 만나 개봉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도 갖는다.

순천 월등초도 10일 졸업식 때 2명의 졸업생을 위해 전교생 26명이 모두 나와 축하하며 후배들과 함께 지내며 촬영한 학

교생활 동영상을 시청하며 석별의 아쉬움을 나눈다.

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영광 백수서초교도 이날 19명의 재학생들 외에 8명의 유치원 수료·졸업식을 같은 장소에서 치러 많은 주민들이 축하하는 '성대한' 졸업식을 계획했다.

보성 웅치초는 3월 1일자로 인근 보성남초로 통폐합되기 전 마지막으로 제 85회 졸업식을 갖고 이날 졸업생 1명을 배출한다.

광주에서도 10일 졸업식을 갖는 93개 초등학교 중 지산·임곡·평동초교가 10명 이하인 졸업생을 배출한다. 지산초교의 졸업식 테마는 '가족'으로, 이날 원탁테이블을 마련해 8명의 졸업생들과 가족들을 행사장 주인공으로 한 축제를 계획했다.

졸업생들은 레드카펫이 깔린 런웨이를 걸으며 입장하며 98명의 재학생들과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동문들은 졸업생 전체에 장학금을 주고 격려한다.

평동초도 10명의 졸업생들이 후배들과 만든 동영상도 함께 보며 아쉬움을 나누고 임곡초교 6명의 졸업생들을 위해 학부모,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광주 효전중은 방송실에서 졸업식을 생중계한다.

한편, 광주원산초교와 광주송정도서관은 7~8일 어린 시절 가난했거나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학교를 못 다니다 뒤늦게 공부에 뛰어들 50~70대 만학도들의 졸업식을 열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정부-농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갈등 격화

### 전남 49억·광주 2억여원 반납해야...도의회 "결손처리하라"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시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중 과다지급된 일부 차액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이 51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농민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달 1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납 거부 투쟁에 나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 수매 당시 8월달 쌀값 평균가의 90%를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우선지급금을 1등급(40kg)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했다. 지난해 쌀값이 크게 떨어지자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시세의 93% 수준인 4만5000원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쌀값이 더 폭락하면서 우선지급금은 4만4140원으로 재확정됐고, 1등급 기준 1포대 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이미 지급받은 돈 중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미 매입이 도입된 이래 최초의 사태로, 정부는 쌀값 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만 농가인 6만 1000여가구가 49억원, 또한 광주도 2671농가가 1억5800만원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석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정부가 쌀 수급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사태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뿐만 아니라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쌀값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사업을 대항하는 농협은 중간에 끼여 답답한 상황이다. 농협 측은 "정부에서는 환수를 하라는데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지서 배포뿐"이라며 "농협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9일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쌀값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영기자 young@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4 해질 18:10  
달출 17:28 달몰 06:33

### 봄은 어디쯤-

눈이 많이 내리겠으니 시설물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세요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맑고 눈 -4/1	보성	구름맑고 눈 -5/1
목포	구름맑고 눈 -3/1	순천	구름맑고 눈 -4/2
여수	차차흐려져 눈 -3/2	영광	구름맑고 눈 -6/-1
나주	구름맑고 눈 -5/1	진도	구름맑고 눈 -1/2
완도	구름맑고 눈 -2/1	전주	구름맑고 눈 -6/-1
구례	구름맑고 눈 -6/1	군산	구름맑고 눈 -5/-1
강진	구름맑고 눈 -4/2	남원	구름맑고 눈 -7/-1
해남	구름맑고 눈 -4/1	축산도	구름맑고 눈 -2/2
장성	구름맑고 눈 -5/0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면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3.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3.0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면바다(서)	서~북서	3.0~5.0	서~북서	3.0~5.0	

### 생활지수

눈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체감온도	관심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44	01:18
19:23	14:05	
여수	02:26	08:59
	15:02	21:09

### 주간 날씨

날씨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날씨	☁	☀	☀	☀	☀	☀	☀
기온	-3/2	-3/5	-3/7	-3/8	-2/9	-2/12	1/9

# 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심각

### 여수성폭력상담소 2045건 중 80%...청소년 1년새 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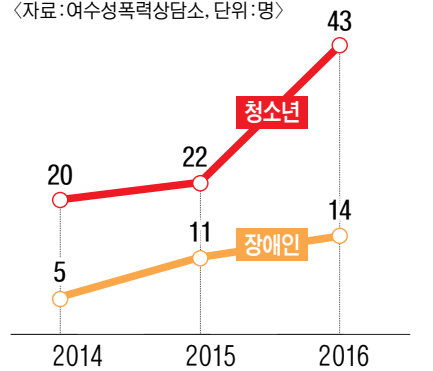
여수지역 청소년과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2046건의 상담 가운데 성폭력 문제가 1628건으로 79.6%를 차지했다. 장애인 상담의 경우 296건(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20명, 2015년 22명, 2016년 4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는 20~59세 성인이 46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14~19세)은 43명(38.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청소년층의 인구가 20~59세 인구보다 적은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층의 성폭력 피해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성 피해자도 5명(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성폭력

### ■여수 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추이




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나타낸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14년 5명에서 2015년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 전대사대부고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거부


국립고인 전남대 사범대 부설교과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학교조차도 "오류와 왜곡·편향 서술 사례가 많다"며 연구학교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국립학교인 전남대 사범대 부설고는


지난 8일 학교운영위원회(9명)를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전대사대부고 교장은 "운영위원들간의 결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10일까지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